종파 · 지역 넘어 포교 전략 공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10월 25일 제1회 포교전진대회 '성황'

오른쪽에서부터 제1회 한불연 포교전진대회에 참석한 정병조 교수, 안동일 회장, 활안 스님, 오상현 한불연 포교전진대회 준비위원장.

전국 불교교양대학 포교사와 재가불자들이 종파와 지역을 넘어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실천적인 포교활동의 확산과 포교전략을 공유하는 포교전진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서울 동산불교대학, 대전 보현불교대학 등 전국 30여 불교교양대학 연합체인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 이하 한불연)는 10월 25일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 제1회 포교전진대회를 봉행했다. 신종 플루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포교전진대회는 1000여 재가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이사장),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 안동일 회장, 동국대 정병조 교수, 대전 보문고등학교 양근환 교장, 한불연 연합포교사 김갑선 단장 등 한불연 소속 포교사 및 신도 등이 참석했다.

활안 스님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단을 초월한 결집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포교사들의 뜻이 모여 불국토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포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 내 가족, 이웃과 사회, 국가, 민족 등 주변인부터 포교하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정병조 교수는 축사에서 "다종교시대에서도 꾸준히 교세가 확장되는 것은 불교교양대학의 지적이고 현대적인 포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다변화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불교를 전하려면 재가불교의 확산만이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종교는 현 시대에 사람들이 표방하는 진리의 세계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느냐에 있다"며 "세계화시대에 맞춰 다문화 가정 등 국제화된 포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일 회장은 재가불자들의 실천적 포교로 재도약하는 불교운동 전개를 위한 3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한불연이 사회의 중심에 설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법보시의 실천, 불경 읽기와 자신의 사회적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는 불교의 생활화, 사회의 정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월주 스님은 '깨어있는 불자의 삶'을 주제로 한 법어에서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지사업 등 사회참여를 통한 포교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월주 스님은 "열린 마음을 갖고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교사는 각자 근기에 맞는 수행을 선행하고 불법을 중생들에게 전하는데 참 의미가 있다. 나만 깨달아 법열에 젖어있지 않고 중생교화를 위해 사회에 뛰어들어 보현행을 행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스님은 △체계적인 불교교리 공부 △이웃종교의 성전 공부 △기본적인 상식공부 △계행을 통한 철저한 자기관리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월주 스님은 언설, 문서, 매체포교 외 '의식(儀式)포교'와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병원, 학교 건설 등 대중포교와 사회복지사업, 사회참여를 통해 대승보살도의 실천이라는 불교 본래적인 자산을 충분히 발현하라"며 포교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이날 포교전진대회에서는 김기성 · 이인섭(동산불교대학), 오영배 · 조관식(보현불교대학), 이경희(덕산불교대학), 장순연(금강불교대학), 구정완(부산불교전법대학) 포교사가 제1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국 불교 교양대학과 신행단체 대표들이 포교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2002년 결성된 한불연은 현재까지 614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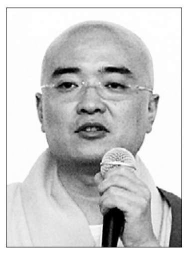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잘 죽는 것?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본부 웰다잉 교육 2월 17일까지

잘 살기에만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잘 죽는 웰다잉(well-dying) 교육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잘 살고자 노력해도 잘 살아지지 않고, 잘 죽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네 삶이지만 무엇이 잘 죽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생사에 대한 근원적인 답 찾기에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본부(본부장 이인자)가 나섰다.

10월 29일 은산 스님(행복한절 주지 · 사진)의 '마음을 여는 길' 첫 교육이 실시됐다.



은산 스님은 "잘 죽는다는 것은 '해탈'이지만 현실적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기란 어렵다.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적 정의에서 벗어나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와 너' '불변과 가변' '색(色)과 공(空)'을 둘로 봐 분별, 경계, 양변적 사고로 살아온 삶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 스님은 "웰다잉이라는 것은 웰빙이다. 잘 죽는 것은 죽음을 직시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야 가능하며 이 노력으로 죽음과 동시에 삶을 이해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은 결국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인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내 경험한계에서 사는 삶을 무명의 삶, 꿈이라 밝힌 스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웰빙과 해탈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문제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에 대한 의식작용에 따른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아드리는 데서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이 이뤄진다. 결국 내가 '안다'는 인식작용은 독이 된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인가? 스님은 '놓아버림' '무아'에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나'도 없고 '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래서 '너'를 위하는 것이 소중한 '나'를 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은산 스님은 마지막으로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산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얻으며 붙잡으려고만 했다. 지난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으면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 겸허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선(禪)을 통한 직시, 좋은 스승을 만나 지도받으며 살라"고 말했다.

웰다잉 교육은 △4대 종교가 말하는 죽음(수필가 맹난자) △웰다잉에 대한 불교적 고찰(쌍계사 주지 월호 스님) △죽음명상 · 자비명상(능인선원 김기호 지도법사) △배려와 사랑 · 용서와 이해(동국대 황수경 강사) △기계적 죽음과 자연적 죽음(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진행자 지현 스님) △유족의 심리치료와 애도 안내(동국대 이범수 강사) △상속과 유언(홍영호 변호사) △삶과 죽음, 둘 아닌 도리(자비선 수행 지도법사 지운 스님) 등이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실시된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위빠사나 실수행체험**=부산 가람사선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위빠사나 이론 및 실수행 체험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지도법사는 도오 스님, 정인 스님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55)383-3340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서울 동국대 정각원은 11월 7~8일 저녁 8시 30분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를 실시한다. 철야정진은 108배 예불 대참회문, 요가, 독경 및 소참법문 등이 기도 정진 45분, 휴식 15분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으며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2)2260-3016

●**월암 스님 '육조단경' 강설**=군포 법해사는 매달 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의 <육조단경>강설을 마련했다. 강연 후에는 법해사 주지 영경 스님이 참선 수행지도도 병행한다. 참가비는 1년 회비 30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 (031)394-7253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개강**=상좌불교한국명상원은 11월 23일~2010년 3월 17일 매주 월, 수 오후 2시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개강한다. 수업은 수행에 대한 이론 60분, 경행 30분, 좌선 60분, 면담의 순서로 이종숙 명상원 지도자가 진행한다. (02)512-5258, cafe.daum.net/vipassanacenter

명상문화연구원 설립

11일 고불법회

한국전통명상문화를 연구 보급할 명상문화연구원이 설립됐다.

(사)명상문화연구원(이사장 세민)은 '명상은 삶의 본질'이라는 기본정신을 토대로 불교 명상을 비롯한 전통명상문화를 연구 보급에 나선다. 연구원은 쉽고 효과적인 명상수행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명상의 대중화, 수행과 봉사적 삶을 제시할 계획이다.

11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설립기념 고불법회 및 초청강연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 주석)의 '명상의 효과와 가치', 혜봉 법사(명상아카데미 원장)의 '명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초청강연이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회장은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상언 기자

채식전문요리사 파견 사업 모색

지혜로운여성 · 여성부 9일 세미나 열어

최고의 웰빙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통사찰음식을 재조명하고 채식전문조리사 파견사업의 장기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채식전문요리사 파견 사업은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과 여성부(장관 백희영)의 공동사업이다. 채식전문요리사는 지난 8월 30명을 선발해 양성 교육 후, 9월에 소외계층 대상 급식시설에 처음으로 파견했다. 이 사업은 채식음식의 대중화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지원과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남혜정 채식조리사파견센터장이 채식요리사와 파견사업의 의미와 전망, 장기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한다.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건강식으로서의 사찰음식 대중화, 고열량식과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 예방, 육식문화의 확산으로 탄소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을 다룬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은 전통 사찰음식이 가지는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의 한 장르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성철 스님 사상 정수 만나요"

불교인재원 24일부터 '백일법문' 강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는 11월 24일 불교인재원 교육관에서 성철 스님의 정수가 담긴 <백일법문>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성철 스님을 25년간 모신 원택 스님, 원철 스님(전 해인사 강사), 서재영 박사(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변희욱 박사(서울대 강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본 강의 외에 '성철 스님의 생애와 전서(全書)'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쓴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의 '나의 화두참선 입문기'를 주제로한 특강도 실시한다. 또 참가자들은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대적광전과 백련암에서 1박2일 템플스테이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백일법문>은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총림 대중들에게 백일 동안 법문한 내용 중 교리적인 부분을 정리해 펴낸 책이다. 종교의 목적과 정의, 부처님의 깨달음과 초기불교, 중관, 유식, 천태, 화엄 사상과 선종사상에 이르기 까지 불교사상사를 중도로 꿰고 있는 교리공부 교재다.

강의는 11월 24일~2010년 2월 7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선착순 40명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12만원이다. (02)735-2428

이상언 기자